

# 한국어 보조사 '-도'의 초점영역확장에 대한 연구\*

조기현

(군산대학교)

**Joh, Gi-Hyun. (2022). A study of focus domain expansion in the Korean delimiter '-do' construc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30(4), 85-103.**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focus domain expansion phenomenon in the Korean delimiter '-do' construction. For this, Chung(2021)'s oblique merge analysis is critically reviewed, the main idea of which is that thematic elements of a verb are formed as a complex focus cluster via the oblique merge operation in overt syntax. I point out that potential problems arise from the oblique merge operation itself, including binding, c-command, case licensing, and adverb interruption. I argue that the problems with Chung's oblique merge analysis are fundamentally caused by the systematic limit under the presupposed head-final structure for Korean. As an alternative, I propose that under the head-initial structure for Korean, the focus complex elements in question can be derived by raising the Del(imiter)P to the focus element, or a chain can be formed between the focus element and the DelP by the movement of the null operator of '-do,' in either case by QR at LF.

**주제어(Key Words):** 보조사구(delimiter phrase), 핵어선(head-initial), 양화사 이동(quantifier raising), 초점영역(focus domain expansion), 사선적 병합(oblique merge)

---

\* 본 줄고에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자분들과 이 줄고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주신 이정식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아있는 어떤 오류도 저자의 몫임을 밝힌다.

## 1. 서론

의미영역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원리에 따르면 운용자의 의미영역은 그 운용자의 성분 통어영역이 되며 하나의 구성소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인데(May, 1977), 한국어 보조사 초점 영역확장 현상은 보조사의 초점영역이 보조사가 붙는 요소와 그 상위의 요소까지 확장되는 것처럼 보여 일반적인 해석원리에 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한국어 보조사 초점영역확장 현상에 대해 일반적인 의미영역 산출방식에 의해 설명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대표적인 연구들은 반초점 운용자 분석(Anti-focus Operator Analysis)(An, 2015), 술어(동사) 상승 분석(Verb Raising Analysis)(Koizumi, 1995), 그리고 사선적 병합 분석(Oblique Merge Analysis)(Watanabe, 1992; Chung, 1997) 등이 있다. 최근 정대호(2021)은 (1a~c)와 같은 예문(정대호, 2021, p. 42 (7))을 포착하는데 있어서 사선적 병합(oblique merge) 분석을 제안한다.

- (1) a. 존이 메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정대호, 2021, p. 42 (7))
- b. 톰도 메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정대호, 2021, p. 42 (7))
- c. 톰이 메리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정대호, 2021, p. 42 (7))
- d. 톰이 메리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정대호(2021, p. 43)은 (1)에 대한 설명에서 (1a)에 적절하게 상응하는 것은 (1b)이고, (1c)도 약간은 어색하지만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본 소고에서도 만일 ‘(존 이외에) 톰도 메리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1c)도 용인될 수 있다고 본다. (1a)에 대한 정상적인 대응문인 (1b)에서 주어 ‘톰’에 초점이 주어지며([톰+[F]]) 여기에 보조사(delimiter) ‘-도’가 붙는다. 이에 비해 (1c)에서는 주어 ‘톰’에 초점이 주어지지만 주격표지 ‘-이’가 붙고 대신 보조사 ‘-도’는 흥미롭게도 뒤에 나오는 간접목적어인 ‘메리에게’에 붙어 있어서([메리에게-도]) 초점영역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1d)는 주어와 간접목적어가 다중조각구로 남는 예인데 여기서도 ‘-도’의 초점영역확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대호(2021)은 보조사 ‘-도’의 성분통어(c-command) 영역 내에 있는 요소(들)이 초점을 지닌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1b)와는 달리 (1c)에서 간접목적어인 ‘메리에게’는 동사구 내 또는 별도의 ‘-도P’ 내에 있으나 주어인 ‘톰’이 일반적인 수형도 구조에서 ‘-도’의 성분통어 영역에 들어있지 않고 TP의 지정어 자리와 같은 동사구 밖 또는 별도의 ‘-도P’ 밖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대호(2021)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Watanabe(1992)의 사선적 병합(oblique merge)을 기반으로 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정대호(2021, p. 54 (21))이 수형도로 제시하고 있는 사선적 병합의 요지를 표찰괄호표시로 좀 더 상세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동사(V)와 의존요소 병합

K = [VP 톰이 [메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정대호, 2021, p. 54 (21a))

(3) 의존요소 간 사선적 병합

L=[VP [[NP 톰이] [PP 메리에게]] [뻘라에게 선물을 주었다]]  
(정대호, 2021, p. 54 (21b))

(4) 보조사 “-도”의 평행병합

M = [[[NP 톰이] [PP 메리에게]]-도] (정대호, 2021, p. 54 (21c))

(5) 보조사구(DelP)와 동사구(VP) 병합

M + L = [VP [[[NP 톰이] [PP 메리에게]]-도] [[[NP 톰이] [PP 뻘라에게]]  
[뻘라에게 선물을 주었다]]] (정대호, 2021, p. 54 (21d))

먼저 (2)에서처럼 핵어말 수형도 상에서 ‘주어-간접목적어-직접목적어-동사’의 뼈대가 갖추어진다. 다음 간접목적어가 주어에 사선적 병합(oblique merge)을 통해 형성된 복합체에 보조사 ‘-도’가 직접 병합하는 것은 반순환적인 것으로 확장조건(Extension Condition)을 위반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정대호(2021)은 (4)에서처럼 복합체와 보조사 ‘-도’와의 평행 병합(parallel merge)을 추가로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확장된 보조사구(DelP)가 동사구와 병합하여 원하는 (5)의 결과가 도출되고 ‘-도’의 성분통어 영역에 ‘톰이’와 ‘메리에게’가 속하게 된다. 특히 주어 초점구 ‘톰이’가 보조사 ‘-도’의 성분통어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후 복합체 [톰이 메리에게도]는 주어 자리 즉, TP의 지정어로 이동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톰이’와 ‘메리에게’는 각각 주어와 간접목적어로서 부가(adjunction)를 통한 사선적 병합에 의해 이상한 수식 관계를 맺게 되는 일반적이지 않은 복합구성체가 형성된다는 것이다.<sup>2)</sup> 이러한 제한은 (1라)의 다중조각구의 도출에도 적용될 수 있어 보인다.<sup>3)</sup>

(6) [[톰이 메리에게]-도]<sub>i</sub> [t<sub>i</sub> 선물을 주었다]

정대호(2021)의 분석에 따르면, (1d)는 (6)의 [[톰이 메리에게]-도]가 상위의 초점구(FocP)로 이동하고 그 뒤의 절범주(TP)가 생략되어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정대호(2021)은 이러한 사선적 병합 분석이 한국어 보조사 ‘-도’의 초점영역확장현상을 포착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1) 아래에서 논의 상 동사가 굴절된 상태로 VP 내에 있다. 정대호(2021) 이전의 관련 논의에 의하면 기굴절 상태인 ‘주’로 표시될 것이다. 완전한 동사 굴절체는 통사부가 아니라 음성부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2) Takano(2002)는 이 특이한 복합체를 ‘의외의 구성소(a surprising constituent)’라고 불렀다(정대호, 2021, p. 54).  
3) 정대호(2021)의 입장에서 (1d)는 (5)에서 바로 VP를 생략하여 얻지 않는다. 앞의 각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사의 여러 굴절 어미들이 VP 밖에 있기 때문이다.

다른 방안들에 비해 비교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소고에서는 먼저 초점영역확장 현상에 대한 기존 분석들 중에서 정대호(2021)의 사선적 병합 분석을 중심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선적 분석을 제안하는 정대호(2015, 2021)이 Kayne(1994)과 이정식(2016) 등의 범언어적 가설하에서 왜 한국어 보조사만이 그 보충어의 상승을 불허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요구된다고만 언급하고 있어 핵어선 구조를 전제로 한 한국어 보조사 분석(이정식, 2016; 이정식·조기현, 2016)이 문제의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절에서는 서론으로 한국어 보조사 ‘-도’의 초점영역확장 현상의 흥미로운 점을 확인한다. 2절에서는 한국어 보조사의 초점영역확장현상에 대한 사선적 병합 분석을 중심으로 제기될 수 있는 사선적 병합의 운용, 성분통어, 결속원리, 격인허, 그리고 부사어 간접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한국어 핵어선 구조를 전제로 LF에서 QR 이동과 연쇄 형성을 통한 분석으로 사선적 병합 분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초점영역확장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을 논의한다. 4절은 핵심 내용 요약 및 추후 연구과제에 대해 언급하며 결론을 맺는다.

## 2. 한국어 보조사 ‘-도’의 초점영역확장

서론에서는 한국어 초점영역확장 현상에 대한 기존의 분석들 중에서 정대호(2021)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선적 병합(Oblique Merge) 분석의 특징에 대해 대략적으로 언급하였고, 본 절에서는 사선적 병합 분석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고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1. 사선적 병합의 운용 가능성

한국어 보조사 ‘-도’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초점영역확장이라는 특별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정대호(2021)이 (3)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선적 병합이라는 운용이 필요하고 또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톱이’와 ‘메리에게’라는 주어와 간접목적어가 사선적(oblique)이라는 부가(adjunction) 운용을 통해 복합구성체를 이루어 아주 특별한 수식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문제는 ‘메리에게’가 초점구도 아닌데 무슨 동기로 먼저 초점구 ‘톱이’에 부가되는지 분명하지 않다. (4)에서처럼 미리 예측하고 복합체 [톱이 메리에게]가 보조사 ‘-도’에 병합될 수 있도록 예비하기 위해 이 사선적 병합을 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여기서 두 요소 간에 어떠한 성격의 사선적 일치가 형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핵어말 수형도 상에서 (2)에서처럼 ‘주어-간접

목적어-직접목적어-동사'의 뼈대가 갖추어진 다음에, 간접목적어가 주어에 부가되는 것은 반순환적인 것으로서 확장조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대호(2021)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소위 평행적 병합 접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2)와 (3)에서 언급한 내용은 전통적인 핵 이동이 확장조건을 위반하는 것과 동일하게 확장조건 위반이 분명해 보인다. 사전적 병합 분석하에서는 왜 이러한 문제가 무마되는지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간접목적어가 측면이동(sideward movement)이나 수형도 간 이동(interarboreal movement)을 하여 다른 평행공간에서 주어에 부가한다면 확장조건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정대호(2021)에서 (3)의 사전적 병합은 이와는 다른 것으로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주어와 술어 간의 의미역 관계가 복합체 형성 이전에 맺어져야 한다고 보아 먼저 (2)의 통사체를 가정하기 때문이다 (정대호, 2021, p. 53, 각주 9). 그래서 정대호(2021)이 (3)에 제시한 사전적 병합은 (2)의 구조를 가정하는 한 그 의도와는 달리 확장조건 위반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5)에서 보조사구(DelP)가 동사구와 병합하는 것은 정대호(2021)이 가정하는 대로 보조사구 복합체가 동사와 직접 의미역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가적 병합일 것이다 (정대호, 2021, p. 53 각주 9).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보조사구가 동사구에 부가적 병합하는 것이 무슨 일치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오히려 주어 자리에 바로 병합하는 것이 최소주의적 운용일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3)과 (4)에 제시된 사전적 병합에 곧 이은 평행병합(Parallel Merge)가 과연 최소주의적 과정인지도 좀 더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2. 성분통어와 초점확장영역

(7)의 예문들은 사전적 병합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7) a. 빌이 메리에게 존을 소개했다.
- b. 빌이 메리에게 톰도 소개했다.
- c. 빌이 메리에게도 톰을 소개했다.
- d. 빌이 메리에게도 톰을 소개했다.

실제로 정대호(2021, p. 45)는 보조사 '-도'가 오른쪽으로는 초점영역확장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7)의 예는 정대호(2021, p. 45)가 고려한 예와는 약간 다르며, (7c)는 초점영역의 우향확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7c)에서는, 앞의 경우와는 달리, 직접목적어가 간접목적어에 사전적 병합을 통해 (8)과 같이 하나의 큰 복합구성체가 형성될 것이다. 이 경우에 그 안에 '-도'가 매립되어 이 '-도'가 직접목적어 '톰을'을 성분통어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정대호(2021)의 주장과는 달리 직접목적어 '톰을'이 보조사 '-도'의 초점영역에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 (8) [[메리에게]-도] [툼을]

정대호(2021)이 제시하는 (9)의 예문들을 살펴보자(정대호, 2021, p. 54 (13)).

(9) a. 존이 메리에게 책을 주었다.

b. #존도 툼에게 책을 주었다. (비교: 존이 툼에게도 책을 주었다.)

사선적 병합 분석에서는 (9b)에서 보조사 '-도'가 우측 요소와 초점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볼 뿐만 아니라 이를 일반화한다. 그러나 (9b)에서 초점영역확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에는 동의하지만 초점영역확장에 있어서 (7c)와 (9b)의 차이가 발생하는 다른 요소가 있다고 본다. (9b)가 의도한 바는 물론 '툼에게' 붙을 '-도'가 왼쪽의 주어 '존'에 붙은 것이라고 하지만, (9b)는 (7c)와는 달리 문장의 첫 요소인 주어 '존'이 바로 '존도'로 시작하여 (9a)의 적정한 대응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조사 '-도'가 함의하는 대로 또 다른 사람을 요구하나 (9a)의 주어 '존'과 동일인이어서 애초부터 이러한 부적합성이 지배하여 '-도'의 초점영역확장을 은폐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7c)와 (1c)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9b)와 대비하여 (7c)에서 초점영역확장은 동사의 두 내부 논항 사이에서 일어나는 차이가 있다.

간접목적어가 주어 앞으로 이동한 어순인 유사한 예를 살펴보자.

(10) a. 메리에게 존이 선물을 주었다.

b. 메리에게 툼도 선물을 주었다.

c. 메리에게도 툼이 선물을 주었다.

d. 메리에게도 툼이 선물을 주었다.

(10c)는 (11)과 같은 복합체가 형성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 (11) [[[메리에게]-도]] [툼이]]

(11)에서도 정대호(2021)의 사선적 병합 분석과는 달리 주어 '툼이'가 보조사 '-도'에 성분통어 되지 않아 그 초점영역에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 2.3. 결속 조건

대용어가 출현하는 보조사 초점영역확장 현상의 예문을 살펴보자.

- (12) a. 존이 메리에게 자기의 차를 보여 주었다.  
 b. 톰도 메리에게 자기의 차를 보여 주었다.  
 c. 톰이 메리에게도 자기의 차를 보여 주었다.

(12)에서 각 문장의 주어인 '존'과 '톰'은 각각 직접목적어 내의 대용어 '자기'를 성분통어 하여 결속한다 (Condition A). 이제 (12c)에서 주어와 간접목적어가 사선적 병합하고 다시 '-도'와 평행병합하게 되면 (13)에서처럼 하나의 큰 구성소가 되면 그 안에 매립된 주어는 이 대용어를 성분통어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13) [[[톰이] [메리에게]]-도] ..... [자기 ....]

주어 '톰이'가 사선적 병합 되기 전에 (2)에서처럼 VP의 지정어 자리에 있어 결속이 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어 '톰이'가 해당 지정어 자리에 병합된 후 사선적 병합이 이루어진다면 반순환적으로 확장조건을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사선적 병합 분석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주어 '톰이'가 VP의 지정어 자리에 먼저 병합되지 않고 간접목적어인 '메리에게'가 측면이동을 하여 둘이 따로 평행병합을 한 후에 함께 주어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sup>4)</sup>

요컨대, 사선적 병합이라는 운용이 문체의 현상을 다루기 위하여 채택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정대호(2021)에 따르면, (13)에서처럼 간접목적어 논항 명사구가 주어 논항 명사구에 부가(adjunction) 형식으로 병합되는데 이러한 운용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간접목적어가 부가되어 주어를 수식한다고 보는 것인데 이 둘 사이에는 실제로 아무런 수식 관계도 형성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4)에서 직접목적어 대명사 '그를'은 각 문장의 주어를 지시한다.

4) 한 심사자가 지적한 대로, 주어-간접목적어 복합체의 지표가 주어가 되므로 얼핏 결속의 문제는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도'보조사구(DelP)를 넘어 주어가 여전히 대용사를 결속할 수 있을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i) [[[톰이] [메리에게]]-도] 자기의 차를 보여주었다.

정대호(2021, 54쪽, (21))은 사선적 병합된 [톰이 메리에게]가 다시 다른 작업공간에서 '-도'와 평행병합을 하여 이로부터 도출된 전체 구조에 DelP라는 표찰을 붙였다. 하지만 동일 쪽 각주 10에서는 평행병합된 요소는 표찰 없는 객체(object)이며 나중에 통사-의미 접면부에서 이 무표찰 객체가 해석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주어 지표가 이 경우에도 더 확장될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톰이'와 '메리에게'가 애초에 평행병합 하게 되면 확장조건 위반은 없을 것이지만 최종적인 무표찰 평행병합 구조에서 ([[톰이] [메리에게]]-도] 결속이 과연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도 불분명하다고 본다.

- (14) a. \*존이 메리에게 그를 소개했다.  
 b. \*툼도 메리에게 그를 소개했다.  
 c. \*툼이 메리에게도 그를 소개했다.

(14)에서 문장의 주어인 ‘존’과 ‘툼’은 각각 직접목적어인 대명사 ‘그를’을 성분통어 하여 결속하게 되어 비문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Condition B). 그러나 (14c)에서 간접목적어가 주어에 사전적 병합하여 (15)와 같이 하나의 큰 복합구성체가 된다면, 그 안에 매립된 주어는 이 대명사를 성분통어 할 수 없을 것이다.

(15) [[[툼이] [메리에게]]-도] ..... [그를]

따라서, 주어 ‘툼’이 직접목적어 대명사 ‘그를’을 결속하지 못하여 (14c)가 사실과 달리 문법적으로 예측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접목적어 대용어 ‘자신’이 각각 주어를 지시하는 (16)의 예들을 살펴보자. (16c)의 경우에 보조사 ‘-도’가 직접목적어에 붙어 초점영역 확장이 일어나는데, 사전적 병합이 적용되면 (17)의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 (16) a. 존이 자신을 추천해.  
 b. 툼도 자신을 추천해.  
 c. 툼이 자신도 추천해.

(17) [[[툼이] [자신]]-도]

(17)의 복합체 구조에서 대용어 ‘자신’이 지시 표현하는 선행사 ‘툼’을 성분통어할 수 있게 되어 결속하게 되므로 (참고: \*자신도 툼을 추천해.), (16c)가 비문법적인 것으로 그릇된 예측을 하게 된다 (Condition C).<sup>5)</sup> 이에 대해 정대호(2021)은 (18c)에서처럼 주어에 붙을 ‘-도’가 목적어에 붙어 초점영역확장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5) 한 심사자는 사전적 병합에서는 성분통어되는 후행요소가 성분통어하는 선행요소에 부가되어 ‘툼’이 ‘자신’에게 성분통어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사전적 병합에 의한 부가구조는 ‘툼’의 지표가 확장되어 [[[툼이]-[자신]]<sub>i</sub>]이 되고, 이후 ‘-도’와 평행병합을 하여 [[[툼이]-[자신]]<sub>i</sub>-도]가 도출되는데, 앞의 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구조는 무표찰 객체인데 잠시 편의상 DelP라 간주한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툼이]-[자신]]<sub>i</sub>-도]에서 ‘자신’이 ‘툼’을 성분통어 하는냐의 여부이다. 그런데 [[[툼이]-[자신]]<sub>i</sub>]의 부가구조는 분절(segment)를 포함하기 때문에 ‘자신’을 관할하는 첫 분지 절점은 DelP가 되고, 이 DelP가 역시 ‘툼’을 관할하기 때문에 성분통어가 성립하게 된다고 본다.



- (18) a. 존이 책을 샀다.  
 b. 톰도 책을 샀다.  
 c. #톰이 책도 샀다.  
 d. 톰이 잡지도 샀다.

정대호(2021)에서 (18)과 같은 예문들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은 채 화자의 다양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지만 본 소고에서는 (18c)에서도 논의하는 초점영역확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오히려 정대호(2021)이 제안하는 사선적 병합 분석의 과제는 (18c)의 초점영역확장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여부인데 이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sup>6)</sup> 또한 (18d)와 같은 예는 실제로 문제의 초점영역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흥미롭게도 (16c)에서 목적어 '자신'은 주어 '톰'과 동일인이므로 문제의 초점영역확장이 일어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 2.4. 격 인허

격 인어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1)의 문장들을 반복한다.

- (19) a. 존이 메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b. 톰도 메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c. 톰이 메리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d. 톰이 메리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정대호(2021)의 사선적 병합 분석에 의하면 (19c)는 아래의 구조표시를 갖는다 (앞의 (5) 이후의 도출).

- (20) [TP [[[NP 톰이] [PP 메리에게]]-도] [VP [[[NP 톰이] [PP 메리에게]]-도]  
 [[[NP 톰이] [PP 메리에게]] [메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6) 또 하나의 남아있는 과제는 절경계를 사이에 두고 초점영역확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정대호, 2021, pp. 44-45 (11), (12)).

- (i) a. 존이 [메리가 떠났다고] 말했다.  
 b. #톰이 [메리도 떠났다고] 말했다.  
 (ii) a. 존이 샘에게 [메리가 떠났다고] 말했다.  
 b. #존이 톰에게 [메리도 떠났다고] 말했다.

정대호(2021)의 분석하에서 '톰'과 '메리'가 사선적 병합을 겪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20)에서 사선적 병합에 의해 형성된 VP 내의 복합체 [툼이-메리에게도]가 전형적인 주격이 인허되는 위치인 T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였다. 이 경우에 복합체 [툼이-메리에게도] 내부의 주어 부분인 ‘툼이’의 주격이 어떻게 인허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sup>7)</sup>

(21) [[KP [NP 툼-이][uCase]] [PP 메리에게]-도] ... T[Agr]

(21)에서 주어 ‘툼’의 비해석성 격자질([uCase])이 T의 일치(Agr) 자질( $\phi$ -자질)과 일치하여 주격(Nom)으로 인허되어야 하는데, 이 복합체의 경계를 뚫고 이러한 인허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러한 격 일치 가능성이 있다면 아래의 (22c)에서 존재 일치도 가능해야 할 것이다.

- (22) a. 존이 할아버지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다/\*주셨다.  
 b. 툼도 할아버지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다/\*주셨다.  
 c. 툼이 할아버지에게도 생일 선물을 주었다/\*주셨다.  
 (23) a. 존이 메리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다/\*주셨다.  
 b. 할아버지도 메리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다/주셨다.  
 c. 할아버지가 메리에게도 생일 선물을 \*주었다/주셨다.

위의 (22b)와 (23b)의 대조는 존재 대상 주어와 존재 ‘-시’간에 일치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 준다. 이제 (22c)에서 복합체 [툼이-할아버지에게도]가 주어 자리에 있다면, 아래 (24)에서는 왜 이 존재일치가 복합체의 경계를 뚫고 이루어지지 않는지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된다.<sup>8)</sup>

(24) [[KP [NP 툼-이]] [PP 할아버지에게[+Hon]]]-도] ... T[+Hon]

7) 참고로 정대호(2021)에서 격 표지가 붙은 명사구는 격 표지 K를 핵으로 하는 KP로 표시된다.

8) 한 심사자는 격인허(혹은 Agree)가 되고 사선적 병합이 된다면 격인허 혹은 존재일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19c)에서 사선적 병합은 확장조건 위반을 모면할 수 없다. 이를 피하려면 별도의 작업공간에서 평행병합 등을 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 격인허 문제가 개입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i) 과자가 메리에게 주어졌다.

(ii) 케익<sub>i</sub>이 메리에게도 t<sub>i</sub> 주어졌다.

정대호(2021)의 제안에 따라 이동하기 전에 VP내에서 사선적 병합을 한다면 [메리에게도-케익<sub>i</sub>] 구조가 예상되어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논평의 취지에 부합하려면, ‘케익’이 주어 자리로 이동한 후 격인허를 받고 사선적 병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사선적 병합은 확장조건 위반을 모면할 수 없게 되며, 나아가 VP 밖의 요소와 사선적 병합을 하게 되므로 그의 사선적 병합 범위는 더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컨대, (24)에서 복합체 내부 성분에 존대일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21)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격인허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sup>9)</sup>

## 2.5. 부사어 간섭

마지막으로 사선적 병합이 부사어 간섭이 있는 초점영역확장 구문에 대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5) a. 빌이 귀찮게 메리에게 전화했다.  
 b. 톰도 귀찮게 메리에게 전화했다.  
 c. 톰이 귀찮게 메리에게도 전화했다.  
 d. 톰이 귀찮게 메리에게도 전화했다.

(25c)에서 두 관련 요소들인 '톰이'와 '메리에게도'가 두 요소 사이에 부사어가 출현하여 비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만일 사선적 병합이 된다면 아래 (26)에서처럼 선형화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어순을 유도해 내지 못할 것이다.

- (26) [톰이 메리에게도] 귀찮게 전화했다.

또는 사선적 병합 분석이 이 부사어구를 포함한다면 (27)에서처럼 (25c)의 어순 도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25d)의 다중조각구도 술어부분을 생략하면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9) 혹자는 국어에서 주격은 일종의 자동격(default Case)이어서 (21)에서 주어 '톰'의 격이 일치에 의하지 않고 바로 주격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i) [[KP [NP 톰[uCase]] [PP 메리에게]-도] ... T[Agr] ([uCase] ⇒ Nom Case)

그래서 [uCase]가 경동사(v)와 일치하면 목적격(Acc)으로 실현되고, 그 외의 경우 자동격인 주격(Nom)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자동격 가설 또한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 자동격은 현 상황에서 채택할 수 있는 가능한 제안이기는 하나 다른 영향이 있을지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7c)에서 (8)의 복합체가 형성되는데 아래에서처럼 목적어 '톰'이 자동격으로 실현되는 가능성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ii) a. [vP [[[메리에게]-도] [톰[uCase]] [[톰tuCase] 소개하-(V)] v[Agr]] ... T[Agr] =>

b. \*빌이 [[메리에게도] [톰이]] 소개했다.

위 (ii)의 복합체 내의 '톰'의 [uCase]는 자동격인 주격으로 실현될 수 있다. 여기서 직접목적어 '톰'이 경동사(v)로부터 목적격(Acc)을 인허받기 전에 사선적 병합을 겪게 되므로 그 [uCase]는 인허받지 않은 채 복합체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결국 직접목적어 '톰'은 삭제되고 이후 복합체 내부에서 자동격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효과는 자동격 가설보다는 근본적으로 사선병합에 의한 문제의 복합체 형성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27) [툼이 귀찮게 메리에게도] 전화했다.

(27)의 부가복합체의 내부구조는 (28)과 같이 ‘귀찮게’와 ‘메리에게’가 먼저 병합하고 다시 이 복합체가 ‘툼이’와 병합한 후 최종적으로 ‘-도’가 병합된다.

(28) [[[툼이] [[귀찮게] [메리에게]]]-도]

정대호(2021)이 제안한 사선적 병합 분석에서 (28)의 도출이 확장조건을 위반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부사어구가 과연 사선적 병합에 가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부사어구는 동사의 투사범주에 부가되며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것이 사선적 병합을 통하여 명사복합체 내부에 자리하여 ‘[[귀찮게] [메리에게]]’처럼 명사와 구성소를 이루면서 이 명사를 수식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도 받아드리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이 두 복합체 요소들은 초점을 지니지 않아 사선적 일치룰 하게 하는 동기가 무엇일지 의문이다. 이 부사구가 사선적 병합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26)의 어순만 가능할 것이다. 만일 사선적 병합을 운용하지 않는다면 (25c)의 어순을 유도할 수 있지만, ‘툼이’는 분리되어 있는 하부의 ‘-도’의 성분통어 영역 밖에 있게 된다. 따라서 정대호(2021)의 사선적 병합 분석으로 (25c)의 어순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 3. 핵어선 구조와 QR 이동

2절에서 정대호(2021)의 사선적 병합 분석을 중심으로 초점영역확장 현상에 대한 기존의 분석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한국어 핵어선 가설 (이정식·조기현, 2016; 이정식, 2016) 하에서 앞에서 논의한 현상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그 대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의 예를 아래에 반복한다. 정대호(2021, p. 49)은 (29c)의 예에 대하여 An(2015)이 채택한 (30)의 핵어선 구조를 소개하고 있다.

- (29) a. 존이 메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b. 툼도 메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c. 툼이 메리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d. 툼이 메리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 (30) a. [-도 [선물을 주었다]]  
 b. [DelP 툼이 [Del' 메리에게 [Del -도 [VP 선물을 주었다] ] ] ]  
 (Del(imiter): -도) (정대호, 2021, p. 49 (17), p. 240 (56))

(30b)의 구조표시는 Del 핵인 '-도'가 유일하게 좌핵에 위치하는 부분적 핵어선 구조이다. 여기서 '-도' 핵이 VP-보어를 취하고 그 투사범주 DelP 내에 초점 요소들을 두고 있다. 사전적 병합 분석에서는 (30b)의 '-도'를 일종의 반초점운용자(anti-focus-operator)로 간주하면서 그 투사범주 내의 주어와 간접목적어를 초점영역에 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보조사 '-도'가 좌핵구조를 취하는 것이 결정적인 단점이라고 언급한다 (정대호, 2021, p. 49, 240-241). 또한 정대호(2021, p. 49)은 이정식(2016) 등의 핵어선 구조 하의 설명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30b)의 부분적 핵어선 구조에서 '-도'의 보어 인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 외에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이정식과 조기현(2016)이나 이정식(2016)은 (30b)와 같은 부분적 좌핵구조를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본 소고에서는 (30b)에서처럼 명사구에 붙는 보조사 '-도'가 바로 수형도의 척추에서 뺏어 나온 가지 핵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본다. 이정식(2016, pp. 277-279)은 실제로 핵어선 구조하에서 다중조각구에서 보이는 초점다발화 현상을 논의하였으며 이 초점다발화에 대한 정대호(2021)의 초기 논문인 Chung(2015)의 제안에 대하여 부사어구 간섭과 관련하여 간략히 비판적인 논의를 한 바 있다. 아래의 논의에서는 핵어선 구조 하에서 초점영역확장 현상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 3.1. 한국어의 핵어선 기저구조

한국어의 기저구조가 핵어선이라 해도 그 전형적인 SOV라는 문장의 표면어순을 얻기 위해서는 문장 요소들이 각기 합당한 이유에 의해 이동하여 선형화 이후에는 핵어말 구조에서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sup>10)</sup> 본 소고가 구체적으로 핵어선 가설을 정당화하는 장은 아니므로 아래에 핵심적인 핵어선 골격구조를 소개하여 문제의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31) [C [T [Foc [v ... [V ] ] ] ] ]<sup>11)</sup> (이정식·조기현, 2016; 이정식 2016)

(32) [FocP 톰이[+F] [vP 메리에게도 [vP 선물을 [... 주었다 [VP .... ] ] ] ] ]

(31) 구조하에서 (29다) '톰은 메리에게도 선물을 주었다'는 (32)의 구조표시를 갖는다. (32)에서 주어 '톰'이 FocP의 지정어에 위치하여 (또는 이후 TP의 지정어 자리로 상승하여)

10) 핵어선 구조는 핵어말 구조가 보이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 본 소고가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장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기현·이정식(2016), 이정식(2016) 및 Kayne(1994)을 참고 바란다.

11) [v와 [V 사이에 동사 굴절을 위한 다른 핵요소들(Mood, Asp, Hon)이 있는데 여기서는 간소화된 핵구조만 소개한다. 예를 들어, "주시었다"는 V '주-', Hon '-시-', Asp '-었-', 그리고 Mood '-다'로 좌향 핵상승하여 도출된다.

목적어를 성분통어 할 수 있으므로 앞의 2.3에서 논의한 결속 현상을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룰 수 있다. 아울러 (32)에서 하위의 [vP .... ]가 생략되면 (29라)와 같은 다중조각구가 도출될 수 있다.

(33) [FocP 톰이[+F] [vP 메리에게도 [vP 선물을 [... 주었다 [VP .... ] ] ] ] ]

사선적 병합 분석에서는 핵어말 구조체계 하에서 한국어의 “-다”와 같은 동사 굴절체의 종결어미가 절의 최상위의 핵어말 C에 위치하므로 위의 두 조각구는 불가피 CP 밖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사선적 병합 및 평행병합 (또는 측면이동) 등의 특이한 운용들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선적 평행 병합 방안은 어떤 이론적인 배경에서 도출된 것이라기보다는 핵어말 구조 체계를 전제로 하는데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내놓은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특히, 정대호(2021)의 분석은 아래 (34)에 반복한 (25c, d)의 분리된 초점확장구문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그 한계가 바로 드러났다.

- (34) a. 톰이 귀찮게 메리에게도 전화했다.  
b. 톰이 귀찮게 메리에게도 전화했다.

(34a)에서 ‘톰이’와 ‘메리에게도’가 사선적 병합하면 하나의 복합체가 되어 (35)의 어순을 도출하게 될 것이므로 (34b)와 같은 다중 조각구는 결코 도출해 낼 수 없었다.<sup>13)</sup>

(35) [톰이 메리에게도] 귀찮게 전화했다. (=26)

그러나 핵어선 구조하에서 (34a)는 (36)과 같은 구조표시를 갖는다.

(36) [FocP 톰이[+F] [vP 귀찮게 [vP 메리에게도 [vP [.. 전화했다 [VP ..]]]]]]

12) 앞서도 언급한 Takano(2002)의 ‘의외의 구성소(a surprising constituent)’를 상기한다. 사실 이러한 제안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13) 한 심사자는 부가어(adjunct)가 후병합(late merger)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형성된 초점복합구 [톰이-메리에게]-도’에서 ‘귀찮게’가 둘 사이에 나중에 끼어들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초점소도 아닌 이 부가어가 왜 ‘-도’의 초점영역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이 부가어에는 ‘메리에게도’와 달리 ‘-도’가 붙지도 않는다. 그리고 부가어가 후병합을 할 수는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형성된 초점복합체 내부로 나중에 이 요소를 끼워 넣을 수도 있다는 데는 선택 동의가 가지 않는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 부가어가 원래 수식하고자 하는 범주와는 동떨어져 문제의 복합체 내의 성분만을 엉뚱하게 수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36)에서 부사어구는 vP에 부가되어 문제의 두 요소 사이에 온다. 그리고 하위의 [vP .... ]가 생략되면 (34b)와 같은 다중조각구가 성공적으로 도출된다.

(37) [FocP 톰이[+F] [vP 귀찮게 [vP 메리에게도 [vP [-..전화했다 [VP ..]]]]]]

앞의 제2.5절에서 보았듯이, 정대호(2021)의 사선적 병합 분석에서는 (34b)의 다중조각구를 성공적으로 도출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보조사 '-도'의 성분통어 영역 내에 해당 요소들을 모두 가두어야 한다는 이론적 전제가 문제의 원인일 수 있으며 결국 '-도'의 초점영역 확장을 어떻게 포착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2. QR 이동 및 연쇄 형성

한 가지 제안은 초점영역확장 현상에서 두 관련 요소들이 정대호(2021)에서처럼 외통사부(overt syntax)에서가 아니라 LF에서 하나의 다발을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36)에서 [DelP [메리에게]-도]가 LF에서 QR 이동을 하여 선행하는 초점소 '톰이[+F]'에 부가되며, '메리에게' 붙은 '-도'가 QR의 동인이 된다고 제안한다. 이 방안은 사선적 병합 분석의 어순상의 문제를 회피하면서도 사선적 병합 분석의 핵심 취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물론 현행의 핵어선 구조를 전제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36)의 LF는 (38)과 같을 것이다.

(38) LF: [FocP/TP [[톰이[+F]] [메리에게도]] [vP 귀찮게 [vP 메리에게도 [vP [-..전화했다 [VP ..]]]]]]

이 제안은 두 요소가 절경계를 사이에 두고 하나의 복합체를 이루지 못하는 사실도 QR의 절제한성에 귀착시켜 포착할 수 있게 된다 (각주 6 참고).<sup>14)</sup>

이와 함께 다른 한 가지 제안은 모종의 운용자의 QR 이동에 의하여 분리된 두 요소들의 연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36)에서 하위의 '-도'와 관련된 공운용자(null operator)가 상승하여 (39)에서처럼 상위의 TP/FocP의 지정어 위치에 있는 초점소 '톰이[+F]'에 이르러 하나의 운용자 연쇄를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39) LF: [TP/FocP 톰이[+F] [vP 귀찮게 [vP 메리에게도 [vP [-..전화했다..]]]]]]



14) 위에서 두 해당 요소들이 이루는 복합체의 표찰(label)이 필요하다면 '-도'의 자질이 우세하여 '-도P' (DelP)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메리에게도] [톰이[+F]]의 경우도 동일하게 다를 수 있다.

이제 분리된 두 요소가 하나의 연쇄를 이루게 되어 일종의 초점영역확장 효과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연쇄머리가 연쇄꼬리를 성분통어하는 것은 전제로 하는 핵어선 구조가 자동적으로 보장해 준다.

이러한 대안은 (30b)의 다중지정어 구조를 취하는 분석에 있어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정대호, 2021, p. 243 (59))도 다를 수 있게 된다.

- (40) a. 나는 [탐도 수에게 전화했다] 생각한다.  
 b. 나는 [탐이 수에게도 전화했다] 생각한다. (정대호, 2021, p. 243 (59a))  
 c. 탐이<sub>i</sub> 나는 [t<sub>i</sub> 수에게도 전화했다] 생각한다. (정대호, 2021, p. 243 (59b))

정대호(2021)은 (40c)에서 ‘탐이’와 ‘수에게’가 함께 보조사 ‘-도’의 영향권 안에 있는 해석이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탐이’의 이동을 허용하는 (30b)의 다중지정어 구조분석을 반박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40c)에서 문제의 해석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이 해석이 가능한 데는 (41)에서처럼 내포절 주어 위치로 이동한 초점소 ‘탐이’의 복사가 남아 여전히 ‘수에게도’와의 인접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 (41) LF: 탐<sub>i</sub> 나는 [탐이 수에게도 전화했다] 생각한다.

한편 정대호(2021)과 같은 화자들이 내리는 정반대의 판단에 대해서는 (42)에서처럼 내포절의 복사가 무시되어 ‘수에게도’가 LF에서 절경계를 넘어 QR 이동을 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 (42) LF: 탐이 나는 [탐<sub>i</sub> 수에게도 전화했다] 생각한다.

정대호(2021)의 다른 반례는 (43)과 같으며 (정대호, 2021, p. 244 (61)),<sup>15</sup> 진하게 표시된 명사는 초점소이다.

- (43) a. A: 철수는 [동수가 **누구**와 사귄다고] 누구에게 말했니?  
 b. B1: [(동수가) **영이**와 사귄다고] **송이**에게.  
 c. B2: \***영이**와 **송이**에게.

우선 정대호(2021)은 (43c)의 조각구 응답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 하에 그

15) 정대호(2021)의 예에서 내포절의 주어는 원래 ‘철수’인데 주절 주어와 동일한 이름 이어서 ‘동수’로 대체했다.



는 '영이'와 '송이에게'의 이동을 허용하는 (30b)의 다중지정어 구조분석을 반박했다. 이러한 반박은 현행의 핵어선 구조분석에도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본 소고는 (43c)에서 문제의 조각구 응답이 전혀 불가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판단 하에서는 반대로 정대호(2021)의 사선적 분석이 문제를 안게 된다.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44)의 예문을 살펴보자.

- (44) a. **영이**와 철수는 [동수가  $t_i$  사귀다고] **송이**에게 말했다.  
 b. **송이**에게, 철수는 [동수가 **영이**와 사귀다고]  $t_j$  말했다.  
 c. ?**영이**와 **송이**에게, 철수는 [동수가  $t_i$  사귀다고]  $t_j$  말했다.

위 (44a)와 (44b)를 고려하면, '영이와'와 '송이에게'가 개별적으로 문두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43c가 좋지는 않지만 혼란이 오는 것을 언급하였다. '-와'와 'and'에 의해 (44c)에서는 두 초점소가 각각 문두로 이동하였는데, 다중 뒤섞기 결과가 보통 그렇듯이, 결과가 완전히 좋지는 않지만, 특히 두 요소 사이에 휴지가 오면 기본적으로 좋다고 여겨진다. 물론 판단이 화자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이제 (44c)에서 적합한 생략이 일어나면 (43c)의 조각구가 도출될 것이다.<sup>16)</sup>

- (45) ?**영이**와 **송이**에게, [철수는 [동수가  $t_i$  사귀다고]  $t_j$  말했다]

정대호(2021, p. 244)은 사선적 병합 분석 하에서는 (46a)의 도출이 배제된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서로 인접하지 않아서 일 것이다. 혹은, 한 심사자가 언급한 것처럼, 동일 TP 내의 요소들이 아니어서 일 것이다. 그래서 생략 후에도 다중조각구 (43c)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선적 병합분석 하에서는 (46b)과 같은 도출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 (46) a. [**영이**와 **송이**에게]<sub>i</sub> [철수는 [동수가  $e_i$  사귀다고]  $e_j$  말했다] (필자의 표시임)  
 b. [[(동수가) **영이**와 사귀다고]<sub>i</sub> **송이**에게]<sub>j</sub> [철수는  $e_i$   $e_j$  말했다]

그래서 절 성분(TP)가 생략되면 다중조각구 (43b)가 도출된다. 현행의 분석에서도 두 요소가 개별적으로 이동한 후 적합한 생략을 거쳐 (43b)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43c)가 나

16) 위 (44c)에서 휴지(,)가 있는 경우 processing할 때 일종의 path 효과를 저지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43c)를 나쁘게 하는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와'라는 공동격표지가 접속사로 여겨질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44c) 대신 [영이를<sub>i</sub>, 송이에게<sub>j</sub>, [철수는 [동수가  $t_i$  좋아한다고]  $t_j$  말해주었다]]를 고려하면 개선 효과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다.

쁘다는 판단은, (45)에서 보듯이 연루된 이동들과 생략에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포착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정대호(2021)의 분석 하에서도 그의 사선적 병합을 통해 (46a)의 도출이 허용될 수 있다.

- (47) a. [송이에게 [동수가 영이와 사킨다고] 말했다]  
 b. [영이<sub>i</sub>와 [송이에게 [동수가 t<sub>i</sub> 사킨다고] 말했다]  
 c. [[[영이<sub>i</sub>와] [송이에게]] [송이에게 [동수가 t<sub>i</sub> 사킨다고] 말했다]] (사선적 병합)  
 d. [[[영이<sub>i</sub>와] [송이에게]] [철수는 [[[영이<sub>i</sub>와] [송이에게]] [송이에게 [동수가 t<sub>i</sub> 사킨다고] 말했다]]]  
 e. [[[영이<sub>i</sub>와] [송이에게]] [철수는 [[[영이<sub>i</sub>와] [송이에게]] [송이에게 [동수가 t<sub>i</sub> 사킨다고] 말했다]]] (생략에 의한 조각구 도출)

위 (47a)에서 ‘영이와’가 이동하여 (47b)가 도출된다. 이 (47b)의 단계에서 사선적 병합이 일어나면 이제 (47c)를 얻을 수 있고, (47d)에 생략이 적용되면 (47e)의 다중조각구가 도출된다. 그래서 정대호(2021)의 의도와는 달리, (43c)가 문제없이 도출될 수 있다.<sup>17)</sup> 이는 그의 사선적 병합 분석에 문제가 있거나 (43c)에 대한 그의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소개한 보조사 ‘-도’의 초점영역확장 현상에 대하여 한 정대호(2021)의 사선적 병합 분석을 검토하고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정대호(2021)의 분석의 요지는 보조사 ‘-도’의 관련 요소들이 외통사부(overt syntax)에서 사선적 병합을 통하여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대호(2021)의 분석이 어떤 이론 내적인 개념적인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전제하고 있는 핵어말 구조하에서 발생하는 체계상의 한계에서 연유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어 보조사 초점영역확장 현상에 대한 대표적인 분석 중 하나인 정대호(2021)의 사선적 병합 분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선적 병합 분석 자체에 대한 문제, 성분통어, 결속조건, 격 인허, 그리고 부사어 간섭 등과 관련된 영역에서 경험적인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더 간단하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대안의 요지는 ‘-도’ 보조사구나 그 관련 운용자가 LF에서 QR 이동을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분석은

17) 이 도출을 막기 위해서는 그의 사선적 병합 적용에 더 많은 제약이 추가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어에 대하여 정대호(2021)을 위시하여 거의 다수가 채택하는 핵어말 구조가 아닌 핵어선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본 소고에서는 논의의 과정상에서 이 핵어선 체제를 더 정당화하는 여지가 부족하였으나 더 자세히 발전시키는 것은 추후 연구 과제로 삼는다.

## 참고문헌

- 이정식. (2016). *국어 통사구조 새로 보기: 핵어선 구조의 관점에서*. 서울: 한국문화사.
- 이정식, 조기현. (2016). 국어 조각구에 대한 분석. *언어학 연구*, 39, 231-250.
- 정대호. (2021). *한국어 다중초점구문과 사선적 일치/병합*. 서울: 한국문화사.
- An, D.-H. (2015). An alternative possibility for focus domain expansion: A reply to Chung 2014.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5(1), 321-332.
- Chung, D.-H. (1997). WH-scope identification via quasi-binding. *Japanese/ Korean Linguistics*, 7, 293-302.
- Chung, D.-H. (2015). An oblique merge analysis of multi-elemental fragment answers in Korean. In *Proceedings of the 17<sup>th</sup> Seou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enerative Grammar*, 68-93.
- Kayne, R. (1994). *The antisymmetry of syntax*. Cambridge, MA.: MIT Press.
- Koizumi, M. (1995). *Phrase structure in minimalist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
- Takano, Y. (2002). Surprising constituents.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1, 243-301.
- Watanabe, A. (1992). Subjacency and s-structure movement of wh-in-situ.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 255-291.

### 조기현

54150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미룡동)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전화: (063)469-4329  
 이메일: johgihyun@kunsan.ac.kr

Received on August 16, 2022

Revised version received on October 1, 2022

Accepted on October 1, 2022